코로나 1년 제주인놀다·아트노크 재정비

문화예술 포털 제주인놀다 동영상 콘텐츠 대응 미비에 예산 늘리고 전담 인력 배치

청년문화매개 아트노크도 홈피 개편 네트워킹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가 늘면서 제주도가 제주문화포털 '제주인놀다' 재정비에 나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청년문화매개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해온 '아트노크' 활성화를 준비 중이다.

'제주인놀다'(www.jejunolda.com)는 '제주문화예술 종합 포털'을 내걸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문화예술인, 문화시설 홍보 채널로 가동할 목적으로 개설됐다.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위탁 운영한 '제주인놀다'는 감염병 시국 속에 단순 행사 정보 안내를 넘어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한 곳에 집적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마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연 4000건이 넘던 '제주인놀다' 행사 정보가 지난해엔 510건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가 문화예술계에 끼친 영향이 컸지만 한편으론 동영상 콘텐츠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제주문예재단이 시행한 코로나 대응 공모 사업인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사업, 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통해 100건이 넘는 영상콘텐츠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코로나 발발 이전 '제주인놀다'에 배정된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했고 도내 공공 공연장 자료가 연계되지 않는 등 시스템 구축마저 미비했다.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 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올리면 동영상 채널과 연동되도록 했지만 공연이나 전시 일정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5000만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온라인 콘텐츠 생산량이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했지만 제주문예재단의 계약직 선발 일정에 따라 이르면 4월쯤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경쟁력 있는 제주 청년예술인들의 작품 등을 공유하는 '아트노크'(artknock.net) 운영에 올 한 해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아트노크'는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사업과 연계한 홈페이지로 2019년에 520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 리뉴얼과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청년예술인 인터뷰 등을 제작했지만 시스템 불안정으로 제때 관련 콘텐츠를 전송하지 못했다. 현재 '아트노크'에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청년예술인 49명의 포트폴리오가 올라 있다.

'제주인놀다', '아트노크'가 가동 중이지만 공적 영역의 제주 문화예술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과제다. 올해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방식을 온라인까지 확대하고 있는 점은 그에 맞춰 관객과 만나는 통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충돌하는 삶의 풍경 속 외로움과 견딤

김성수 시집 '동그란 삼각' 4·3의 기억과 홀로인 생들

삼각은 동그랗지 않다. 뾰족한 세 개의 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시인은 동그란 삼각을 그린다. 동그란 삼각의 현장엔 수만 가지 생이 흐른다. 높이고 낮추는 그 삶들은 요동친다. 동그란 삼각의 그 충돌 속에 시인은 낮추며 사는 소신, 외로움, 견딤을 노래한다. 제주 김성수 시인(사진)의 시집 '동그란 삼각'(바른북스 출판사)이다.

그의 시집엔 홀로, 엉엉 우는 사내가 보인다. '노형리'가 고향인 그에게 끈질기게 따라붙는 제주4·3의 기억 때문일 걸까. '목숨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구멍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너무 늦게'('꿩마농

고장-노형 1948년 11월 19일(금)) 알았다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 홀로 나'('섬바람')라고 읊는다.

시인은 무수히 꽃을 불러내지만 그것은 곱고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다. 꽃은 모든 걸 가졌지만 '나'는 잃을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잃었다. '저,/ 곱다에는 창과 방패가 없다/ 더는,/ 결핍이 보이지 않는다//-내게는 이빨이 딱 버티고 있다// 저,/ 곱다가 와 닿기까지, 나는'('꽃, 그 은유·99)이라고 했다. 공문서 같은 서류와 이미지를 등장시켜 오수관으로 빠져나가려 바둥거리는 시집들의 익숙한 모양새를 풍자하는 시인은 오늘도 '이빨'을 갈며 그 '곱다'란 시어를 유보하고 있는 중이다.

시인은 제주문인협회의 제5회 신인문학상을 거쳐 1996년 월간 '심상'으로 등단했다. 2016년에 서귀포문학상을 받았다. 이번은 '석양에 한 잔', '눈으로 먹는 밥'에 이은 세 번째 시집이다.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혼판

<238>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ᄋᆞ멩이 ᄀᆞᆯ멘, "누님- 요ᄒᆞ루기 글귀 ᄀᆞᆯ아준 거 잇수게? 깅이 게꿈 ᄇᆞ각이 내왕 쉬멍쉬멍 ᄒᆞ멍 읊더레만 기엉가는 말 또시 ᄒᆞ여줍서. 모ᄆᆞᆯᄏᆞ를 뻿젱ᄒᆞ민 지들려사 ᄒᆞ난 그동안마씀게"

좁네 ᄀᆞᆯ앖저, "어, 깅이가 먹을 커 하영 먹곡 이디 저디 막 돌아뎅견 지쳐부난 게꿈 ᄇᆞ각이 ᄒᆞ연 눈만 멀룽멀룽 ᄒᆞ엿젱ᄒᆞᆫ 글귀라낫저.
'--ᄀᆞᆯ메는 착 체완 끼룩끼룩 ᄂᆞᆯ고, 구젱기광 보ᄆᆞᆯ은 꾸물락꾸물락, 깅이덜은 게꿈 ᄇᆞ각이 물언 헤뜩헤뜩 ᄒᆞ염신디,--'<2020 제주어 용례사전. 양전형저> 깅이덜은 바우 트망서 자곡 낮인 바깟디레 나왕 윤펜으로 들락날락 정신 읏이 기엉뎅기메"

*** 제주어 풀이**

*잇수게? : 있지요?
*깅이 게꿈 ᄇᆞ각이 : 게가 거품을 입에서 내어.
*또시(다시, 도로, 또, 토로) <어찌>다시. 또. 도로.
*ᄒᆞ여줍서 : 다시 해 주세요.
모ᄆᆞᆯᄏᆞ를 뻿젱ᄒᆞ민 : 메밀가루를 빻으려면.
*지드리다 : <움직>기다리다.
*막 돌아뎅견 지쳐부난 : 마구 돌아다녀 지쳐니.
멀룽멀룽 : <어찌>멀뚱멀뚱.
*ᄒᆞ엿젱ᄒᆞᆫ : 했다고한.
*ᄀᆞᆯ메(ᄀᆞᆯ매, ᄀᆞᆯ맹이, ᄀᆞᆯ메기, ᄀᆞᆯ멩이, ᄀᆞᆯ미, ᄀᆞᆷ새) : <이름>갈매기.
*착 체완 : 짝을 지어서.
*헤뜩헤뜩('희끗희끗, 희뜩희뜩, 힐끗힐끗'의 작은 말) <어찌> 눈만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여기저기 쳐다보는 꼴.
ᄒᆞ염신디 : 하는 데.

고재만 화백

문화가 쪽지

김병심 시인 산문집 발간

제주 김병심 시인이 산문집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한그루 출판사)을 묶었다.

'연가'의 첫 소절에서 제목을 따온 산문집은 누군가에게 말하듯 써 내려간 60여 편으로 채워졌다. '감물들이기', '천년의 바람을 간직한 돌담', '제주의 겨울밤거리 걷기' 등 제주의 고요한 풍경에 사색의 언어가 흐른다. 비와 파도와 바람이 어루만지는 제주섬에서 시인은 "비바람이 치던 바다는 곧 잔잔해질 것"이라는 위로를 건넨다. "여기, 섬이라는 별에서 당신과 닮은 마음 하나가 등댓불을 밝히고 있으니…."

한라산 문학상 부활 공모

한라산문학동인회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10회 한라산 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한라산 문학상은 한라산문학동인회가 지난해 33년 만에 부활시켰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문학을 통해 지역민을 위로하고 신인 문학인을 발굴하려는 취지다. 공모 부문은 시에 한한다. 1인 5편 이상으로 다른 문학지에 발표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한다. 응모 기간은 3월 1~4월 30일로 e메일(ozoza2004@hanmail.net) 접수하면 된다. 1987년 창립한 한라산문학동인회는 도내 최장수 문학동인회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여류수필' 19집 발간

제주여류수필문학회(회장 강미숙)가 '제주여류수필' 19집을 냈다.

이번 호는 '가족'을 테마로 정했다. 강미숙의 '사랑하는 아들', 고공희의 '유모차', 고여생의 '어머니의 재봉틀', 송미경의 '어머니', 오민숙의 '그녀, 나의 어머니', 오순덕의 '그 마음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이금미의 '어머니의 향기', 이옥자의 '시아버님 영정 모시고', 조영랑의 '아버지를 추억하다'를 읽을 수 있다. '초대 수필'로 김길웅, 김가영의 작품을 실었다. 강 회장은 "가족과의 소소한 추억들을 회상하며 마음의 방역을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4·3시나리오 73편 응모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4·3영화시나리오 전국 공모 결과 총 73편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3대중영화 제작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이뤄진 이번 공모에는 장편극영화 시나리오 66편, 장편 다큐멘터리 7편이 접수됐고 도외 응모작이 50편이었다. 심사를 거쳐 극영화 1편에 상금 5000만원, 다큐멘터리 1편에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4·3평화재단과 JDC는 지난해 6월 시나리오 공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Ⅰ' 영문판 발간 등 4·3문화학술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민요 43곡 악보로 기록하다

제주민요보존회 악보집 제작 창민요·노동요·의식요 등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던 제주섬의 노래가 종이 위에 악보로 기록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보유단체인 제주민요보존회가 엮은 '제주민요 악보집'(한그루 출판사)이다.

이번 악보집은 제주민요의 보전과 전승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주의 창민요, 제주의 노동요, 제주의 의식요 등으로 나눠 총 43곡을 담았다. 제주어가 온전히 살아있는 민요들로 이 섬의 거친 환경을 노래로 견디며 살아온 이들의 일생을 만날 수 있다.

창민요로는 '계화타령', '너영나영', '산천초목', '오돌또기', '봉지가', '영주십경가', '용천검' 등 19곡의 악보를 노랫말과 함께 실었다. 노동요는 '남방아소리', '달구소리', '낭글세왕', '마당질소리', '아웨기소리', '홍애기소리' 등 12곡을 소개했다. 의식요로는 '행상소리', '상사소리', '서우제소리' 등을 수록했다. '자장가(웡이자랑)' 등 일상에서 부르던 민요도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승진 축 영전
CONGRATULATIONS

해양수산국장 해녀문화유산과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양홍식

우윤필

정재철

좌임철

승진 및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도수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한용선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시준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성보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계호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미자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강정욱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강구